

# 남원시, 사회안전지수 '최상위'

### 전국 지자체 155개 대상 측정 평가서 전체 6위·전북 1위 선정

남원시가 '2021 사회안전지수'(Korea Security Index 2021) 측정 평가에서 최상위기관으로 선정되며 주민들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임을 입증했다.

남원시는 머니투데이,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 온라인패널 조사기업 피앤아이이 전국 지자체 155개를 대상(인구 30만 이하)으로 측정한 2021 사회안전지수 조사에서 전체 6위를 차지해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중소도시 중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집계됐다(5일 밝혔다.전체 6위, 전북 1위)

올해 처음으로 발표된 사회안전지수는 시민의 안전과 불안감에 영향을 주는 경제활동(1인당소득, 1인당 사회보

제예산, 고용률 등)과 생활안전(치안시설 수, CCTV 숫자 등), 건강보건(주요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 의료인수), 주거환경(주거비용 부담 정도 등) 4가지 기준으로, 이번 조사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3주 동안 전국 1만8,325개 표본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국가통계 뿐 만 아니라 온라인 설문조사도 병행됐다.

남원시는 이번 조사에서 사회안전지수 65.99점으로 전국 1위에 오른 서울 용산구(71.27점)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 지방 중소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세부 지표 중 생활안전(4위), 건강보건(3위) 분야의 순위가 높은 등 주민체감형 정책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서 남원시는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기관(대통령 기관 표창),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국무총리 기관 표창), 건강증진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민약의 재난상황을 대비해 안전환경을 구축하고, 코로나19와 수해 피해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해 복구하면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섰던 기반과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은 요인으로 작용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남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 전 군민 코로나 전수조사

### 추가 확진자 확산 막기 위해 오늘부터 14일까지 진단검사

순창군이 요양병원발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에 흥역을 치른 가운데 전 군민 코로나 전수조사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놓고 추가 확진자 발생을 사전 키로 했다. 5일 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6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방식은 기존 PCR방식으로 진행하던 것을 신속항원검사 방식으로 바꿔, 15분에서 30분이내 확진자 판단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PCR방식은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검사수탁기관인 서울의과대학연구소에 의뢰해 코로나19 확진 유무를 판단했는데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하루 이상이 걸리다 보니 신속한 판단이 어려웠다. 최근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인원 또한 급증하면서 관련기관의 업무가 폭증하면서 의뢰를 맡기는 것 또한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로 하는 만큼 군민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의료원에 설치한 임시진료소를 기존 2곳에서 5곳으로 늘려 검사에 대비한다.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9시, 토요일에는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한다. 순창읍 주민들은 보건의료원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면 주민들은 각 면별 보건지소에 마련된 임시진료소를 이용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면별 임시진료소 운영일은 동계와 북흥이 6일, 풍산와 구림이 7일, 적성파유등이 8일, 팔덕과 쌍치가 11일, 금파와 인계가 12일이다.

해당요일에 이용하지 못한 면 주민들은 14일까지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검사받을 수 있다.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은 "최근 요양병원내 확진자 확산으로 군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이를 사전차단하고 무증상자로 우리 주변에 있지 않도록 코로나 확진자를 빨리 찾고자 이번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주민들을 각 면별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는 최근 요양시설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 남원시, 고위험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확대

남원시는 최근 요양시설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수검사는 1월 4일부터 8일까지 노인요양시설 및 병원 32개소, 중증장애 인거주시설 2개소, 어린이집 55개소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인원은 총 1,963명이다.

이번 고위험시설의 전수검사는 요양병원, 요양원,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종

사지만 2주 1회 진행했으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장애인시설과 어린이집 종사자를 추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위력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철저한 방역수칙준수 당부와 함께 의심증상이 있을지 언제든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무료검사를 받으시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 코로나19 확진자 4명 추가 발생

남원시가 5일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 발생하며 총 확진자는 20명으로 늘어났다.

추가 확진자는 남원 17번에서 20번(전북 880번~883번)으로 남원 16번(전북 845번)과 가정에서 밀접 접촉해 지난 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이들은 지난 1일 1차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었으나 가족 4명 중 1명이 3일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되어 4일 재검사를 받고 5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아 이동 동선과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을 감염병 전담병원(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임소) 조치하여 격리할 예정이다.

남원시 보건당국은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으나 2, 3차 검사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많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접촉일로부터 14일간은 타인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동선분리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승화당에 부부 납골실 운영

남원시는 부부의 경우 납골당 안치일이 상이할 경우 분리되어 안치됨에 따라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부부 납골실을 신규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부 납골실은 부부 중 1명이 먼저 화장 후 봉안 할 경우 배우자 공간을 미리 확보 할 수 있어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친자연적 정례문화 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남원시는 74%정도로 높은 화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납골당은 10년을 봉안할 수 있고 2회 연장이 가능해 총 30년간 안치할 수 있다. 개인실의 경우 10년에 20만원, 신규 설치한 부부실의 경우 40만원으로 2기의 부부 납골함을 모실 수 있다.

봉안당의 경우 남원시 6개월 이상 거주 중 사망자 또는 등록기준지가 남원일 경우, 국가보훈기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로 사망일 현재 남원시 거주자의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 최종 사업자 선정

### 2023년까지 40억7000만원 투입

임실군이 흰 소의 해인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자마자 축산업계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군은 5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 임실낙농특구 위상에 걸맞는 축산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축산악취개선사업에 총 40억7,000만원(국비 20%·국비융자 50%·지방비 20%·자부담 10%)의 투자가 가능해졌다.

우선 올해 사업비로 10억1,200만원을 우선 확보했으며, 2023년까지 목표액 총 사업비 40억7,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축산악취 저감 시설과

퇴비사 등이며, 신청 농가는 49농가에 86개소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축산악취개선 사업은 개별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축산농가의 퇴액비화 시설이나 악취 저감시설 예산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역 여건에 맞게 축산악취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8개 세부 사업을 통합해 지원조건도 통일하는 등 전면 개편됐다.

특히 선정과정에서 축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임실낙농특구의 위상에 걸맞는 축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가별 악취개선 사업계획을 제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축산업이 최근 각종 환경법 강화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 위해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가족분노 처리계

획 및 악취개선 방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악취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산업을 기반한 임실낙농특구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핵심관광지인 임실 치즈테마파크 주변의 악취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재방문을 유도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민 군수는 "이번 사업비 확보로 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이었던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친환경 축산 확대로 지속 발전 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시민소통실, 소통행정 확대 추진

남원시 시민소통실은 2021년에도 시민의 생활민원불편사항 해결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소,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120억원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소통행정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원시는 지난해 운영한 현장민원 120만원 봉사대를 통해 시 구석구석 오지마을을 찾아 총 95회 4,584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했고, 특히 처음으로 운

영한 이동빨래방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하고, 23개 읍면동 421개소에 150억원을 투입 주민 숙원사업 해소에 기여했다.

또한 주민주도의 행복한 마을 만들기 위한 공동체 기본 소양교육 '꿈꾸는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등 4개의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과정과 주민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주민제안공모사업을 통해 28

개팀에 총 8,000만원을 지원했으며, 민선7기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운영을 위해 ▲남원시장과 함께하는 정책대화 ▲남원시민 원탁회의 ▲생활현장에 찾아가는 민원마켓을 추진했고 특히, 온라인으로 진행된 ▲남원시장과 함께하는 정책대화는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시민소통실은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발주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무엇보다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경청, 시민의 고통을 실무부서와 신속·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